

On the Surface

이호인
Hoin Lee

2018년 4월 19일 - 5월 19일
오프닝리셉션: 4월 19일, 목요일, 오후 6 - 8시
장소: 두산갤러리 뉴욕, 533 W 25th St., New York, NY 10001



맨하탄, 2017, 종이에 유화, 54.5x79cm

두산갤러리 뉴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 7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작가 이호인의 개인전 《On the Surfac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호인의 뉴욕 데뷔전으로 도시 풍경을 다룬 유화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호인은 이국적인 지상 낙원의 풍경에서부터 낯익은 도심의 장면들까지 유화로 그려왔다. 과거의 작품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비현실적 풍경을 조감도로 담아냈다면, 최근 작품은 복잡한 도시의 모습을 나뭇가지나 수풀 넘어 조망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환상에서 현실로 초점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주변 환경을 둘러보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 역시 작가가 직접 숲과 거리를 거닐며 바라보았던 남산 타워나 인왕산, 관악산에서의 서울 모습을 화면 위의 안과 밖에 배치한다. 종이 위로 옮겨진 장면들은 작가가 몸담고 있는 곳을 상징하기도 하고, 삶에서 멀어진 자연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 'On the Surface'는 작가가 생각하는 도시 야경의 표면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동시에 동시대의 파편적 장면들을 평면 위에 나타내는 그의 그림을 가리킨다.

미국의 미술 평론가 아서 단토(Arthur Danto)는 그림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호인의 풍경 또한 그가 살아가는 환경과 특정 장소들을 비추며 그 곳을 마주했던 작가의 관점과 감정을 중첩시켜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도시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통해 도시화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호인(b. 1980)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석사 졸업하였다. 케이크 갤러리(2015, 서울, 한국), 16 번지(2012, 서울, 한국),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2009,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삼성미술관 리움(2016, 서울, 한국), 케이크 갤러리(2014, 서울, 한국), 커먼센터(2014, 서울, 한국), 하이트컬렉션(2012, 서울, 한국), 몬차 비엔날레(2011, 몬차, 이탈리아), 아람미술관(2011, 고양, 한국), 대구문화예술회관(2010, 대구, 한국), 공간 해밀톤(2010, 서울, 한국), 원앤제이갤러리(2010, 서울,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 1-212-242-6343(6484)

SEOUL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03129
T. 02-708-5050

RESIDENCY NY
511 West 25th Street 7F,
New York, NY 10001
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